

## Section 03

2014학년도  
중앙대학교  
모의논술

## 인문사회계열

## 인문사회계열 모의논술 문제지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가)

하나의 형태소는 대부분 여러 개의 소리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집’은 ‘ㄱ, ㅣ, ㅍ’의 세 소리로 이루어진 형태소이다. ‘음운’은 형태소 간의 차이를 구별해 주는 소리의 단위인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운이 이어지면 변동이 흔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한 음운이 다른 음운을 만나 말소리의 원래 소릿값이 바뀌는 것을 ‘음운의 변동’이라고 한다.

음운의 변동 현상은 연속되는 두 소리를 가능한 한 비슷하게 만들어 발음을 좀 더 쉽고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데 이런 음운 변동은 여러 양상을 띤다. 그 가운데 마치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각이나 행동이 변화하는 것처럼, 음운과 음운이 연결할 때에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음운이 서로 닮은 소리로 변하는 ‘음운의 동화’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서, 음절의 끝 자음이 그 뒤에 오는 자음과 만날 때 음운의 동화가 일어난다. 가령 음절 끝의 폐쇄음 ‘ㄱ, ㄷ, ㅂ’이 설측음 ‘ㄹ’ 앞에서 공기가 코로 나가면서 코 안을 울려 나는 비음 [ㅇ, ㄴ, ㅁ]으로 발음되는 경우이다. 아래 밑줄 친 낱말들을 발음해 보면, 앞 음절의 받침으로 쓰인 자음이 뒤 음절 첫소리의 자음과 만났을 때 양쪽이 비슷한 비음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분은 저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앞으로 쉬지 않고 몇 리나 더 가야 할지 모르는 제 인생길에 희망을 던져 준 훌륭한 답례였습니다.

## (나)

19세기 초 맨체스터 지방에는 검은색 후추나방이 희귀하게 발견되기도 했지만, 회색 후추나방이 흔했다. 회색은 나무의 지의류와 색깔이 비슷해서 포식자로부터 보호색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나 산업 혁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사정은 바뀌

었다. 산업화로 나무가 숲 검댕이처럼 검게 오염되었고, 검은색 후추나방이 오히려 포식자 눈에 띄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검은색 후추나방이 점점 흔해졌고, 20세기 중반이 되어서는 후추나방 10마리 중 9마리 정도가 검은색이 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현대 생물학에서는 진화를 '생물 집단 속에서의 유전자풀이 세대가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유전자풀이란 어떤 생물 집단이 갖는 모든 유전자를 말한다. 그러면 어떤 요인으로 유전자풀이 변하게 되는 것일까?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경우의 하나로 유전자 자체에 발생한 돌연변이를 들 수 있다. 돌연변이는 유전 정보가 복제되는 과정에서 일부가 잘못되어 발생하는 것으로서, 대부분 생존에 불리하여 자연 선택 과정에서 도태되기 쉽다. 발생한 돌연변이 형질이 도태될 경우 유전자풀을 변화시킬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생존에 불리하지 않거나 유리한 돌연변이가 발생할 경우, 집단에서 도태되지 않고 돌연변이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집단의 유전자풀에 변화가 나타난다. 19세기 초에는 돌연변이에 의해 검은색 후추나방이 나타났다고 해도 생존에 불리했으므로 돌연변이가 유전자풀에 변화를 주지 못했다. 그러나 산업 혁명 후에는 검은색 돌연변이가 오히려 생존에 유리했으므로 후추나방 개체군 안에서 번식할 기회가 증가했다. 결국 돌연변이 유전자를 자손에게 계속 전달 수 있게 되어 유전자풀에는 검은색 유전자가 증가했다. 이러한 유전자풀의 변화가 여러 세대 동안 축적되면 기존의 집단과는 다른 새로운 종으로도 분화할 수 있게 된다.

#### (다)

‘향기로운 봄’(1982)은 프랑스 기욤 소충서의 하나로 로니가 한국 소설 ‘춘향전’을 번역한 것이다. 기욤 소충서는 소설자인 하나 가족으로 장정된 매우 고급책이며, 호화 용지에 이 충서를 위한 특별 활자를 사용했다. 속표지에서부터 삽화가 있고, 장마다 군데군데 삽화가 끼어 있는데, 그 모두가 서양인들의 의상을 입은 신사숙녀로 되어 있다. 무도회에 춤추러 다니는 19세기 말의 프랑스의 신사숙녀를 그대로 그려 놓은 것인 만큼 우리 원본 춘향전(경판본)과는 매우 다른 인상을 주고 있다. 곧 프랑스식으로 분석된 작품이다. 이러한 개편은 다만 외면상의 것에 지나지 않지만, 실상 외면적인 것에 멈추지 않고 내면 속으로도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그중 크게 두드러진 것은 다음 네 가지 점이다. 첫째, 춘향이 기생이 아니라 다만 ‘서민의 딸’로 등장한다. 둘째, 춘향의 모인 기생 월매가 등장하지 않는다. 춘향이 기생이란 점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퇴기 월매의 존재는 의미가 없다. 셋째, 향단이 완전히 빠져 있고 그 대신 매파가 개입되어 있다. 그러니까 로니가 설정한 매파 개념은 향단과 월매의 대역으로 고안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도령이 춘향에 접근하는 방식이 ‘구운몽’ 중의 정경파 부분 및 ‘숙영낭자전’의 만남 모티프와 흡사하다. 이 도령이 춘향을 만나기 위해 여장을 한 것이 특징적이다. 이처럼 로니는 ‘춘향전’을 그들의 취향에 맞게 개편하여 번역하였다. 로니는 그가 서양인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출판인들도 독자를 납득시킬 수 있는 방식을 택하였을 것이다. 감옥에 갇힌 춘향을 찾아온 이 도령이 철창을 가운데 두고 손을 벌려 키스를 한다는 장면도 그러한 것의 한 가지 방식이다.

역자 로니가 ‘춘향전’을 번역하면서 가진 근본 태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서문에서 그가 아래의 한시를 두고 말한 대목에서 엿볼 수 있다.

金樽美酒千人血 (금잔의 맛좋은 술은 천백성의 피요)

玉盤佳肴萬姓膏 (옥쟁반의 기름진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니)

燭淚落時民淚落 (촛농이 떨어질 때 백성들이 눈물 쏟고)

歌聲高處怨聲高 (노래 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도 높더라)

“이 짧은 시는 코리아의 정신과 감정에 대하여 더 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더 잘 가르쳐 주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즉, 이 시는 이 느린 황색의 문명에 대한 아주 인상적인 공감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이 시는 우리와 홍인종과의 만남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과 우리의 만남이 전혀 파괴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도와줄지도 모른다.”

만일 ‘춘향전’이 한국의 고전이라면 그것은 곧 세계 여러 인종들의 가슴속의 적대감을 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로니의 지적은 값비싼 것이라고 생각한다. 셰익스피어나 보들레르가 영국이나 프랑스의 고전이라면 그것들이 동시에 세계 여러 인종들 가슴속의 적대감을 뚫을 수 있는 힘을 가졌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그런 것을 고전이라고 할까 보나. 로니는 ‘춘향전’을 그러한 고전의 하나로 보고 번역한 것이라 생각된다.

---

(라)

---

“내선일체는 반도 통치의 최고 지도 목표이다. 내선일체는 서로 손을 잡는다던가, 형태가 융합한다던가 하는 그런 미적지근한 것이 아니다. 손을 잡은 것도 떨어지며 또한 별개가 된다. 물과 기름도 무리하게 혼합하면 융합된 형태로 되지만 그것으로도 안 된다. 형태도, 마음도, 피도, 육체도 모두 일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내선일체란 재래의 조선적인 것을 버리고 일본적인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리하여서 조선 2천 3백만이 모두 호적을 들추어보기 전에는 일본인인지 조선인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이 그 최후의 이상이다.”

위와 같은 목표를 실현한다는 명분 아래 일제는 민족 말살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학교와 관공서에서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고 대신 일본어를 사용하게 하였다. 아울러 성과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아래와 같이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강요하였다.

1. 창씨를 안 한 자들의 자녀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의 입학과 진학을 거부한다.
2. 창씨를 안 한 어린이들은 일본인 교사들이 구타·질책하는 등 그를 중오함으로써 어린이로 하여금 호소로써 부모에게 창씨를 하게 한다.
3. 창씨를 안 한 자는 공사 간 그들의 기관에 일체 채용 안 한다. 또 현직자도 점차 해임 조치한다.
4. 창씨를 안 한 자는 행정 기관에서 다루는 모든 사무를 취급해 주지 않는다.

---

(마)

---

동남아인 두 여인이 소곤거렸다  
 고향 가는 열차에서  
 나는 말소리에 귀 기울였다  
 각각 무릎에 앉아 잠든 아기 둘은  
 두 여인 닮았다  
 맞은편에 앉은 나는  
 짐짓 차창 밖 보는 척하며  
 한마디쯤 알아들어 보려고 했다  
 획 지나가는 먼 산굽이

나무 우거진 비탈에  
 산그늘 깊었다  
 두 여인이 잠잠하기에  
 내가 슬쩍 결눈질하니  
 머리 기대고 졸다가 언뜻 잠꼬대하는데  
 여전히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말이었다  
 두 여인이 동남아 어느 시골에서  
 우리나라 시골로 시집왔든 간에  
 내가 왜 공연히 호기심 가지는가  
 한잠 자고 난 아기 둘이 칭얼거리자  
 두 여인이 깨어나 등 토탕거리며 달려왔다  
 한국말로,  
 울지 말거레이  
 집에 다 와 간테이

---

**(바)**


---

7~8세기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각국의 정세가 안정을 이루며 교역도 크게 활발해졌다. 이 시기에는 국가나 정권을 초월하여 다양한 문화가 전파되고 상호 교류가 확대되었고 출신 지역을 떠나 타국에서 활동하는 인물이 많았다. 당의 과거에 합격한 최치원이나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당과 일본 사이를 중개하여 해상 무역을 독점한 장보고, 바닷길과 비단길을 통해 인도를 여행하고 당에 돌아와 '왕오천축국전'을 지은 혜초는 신라 출신이었다. 신라인의 도움을 받아 당을 순례하고 나서 '입당구법순례행기'를 남긴 승려 엔닌과 당의 과거에 합격하여 안남도호부의 도호를 역임한 아베노 나카마로는 일본 출신이었다. 당 출신으로 일본에 문물을 전한 감진처럼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승려도 있었다.

당은 유목 민족과 한족이 융합된 남북조 문화의 영향을 받아 귀족적이고 화려하면서도 개방적인 문화를 꽃피웠다. 수도 장안은 사막을 연결하는 비단길과 인도양을 지나 광저우에 이르는 바닷길이 합류하는 동서 무역과 문화의 집결지이기도 하였다. 장안에는 학문적·종교적·경제적인 이유로 많은 외국인 사신, 유학생, 유학승, 상인, 무인, 예술인 등이 체류하고 있었다. 크리스티교(경교),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이슬람교 등의 종교와 문화가 교류되었다. 신라, 발해, 일본에서 온 사람들은 당의 문인, 서역에서 온 사람들과 교류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각자 고유의 종교와 생활양식을 가지고 집단으로 거주하였기 때문에 당은 마치 세계 문화의 경연장 같았다. 세계 각국의 종교와 문화가 당의 수도 장안을 중심으로 서로 교류하고 융화되었으며, 다시 인적 교류를 따라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동아시아 각국의 문화가 서로 닮아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

**(사)**


---

냉전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종식되고 나서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국가 내 혹은 국가 간 충돌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충돌과 갈등은 영토 분쟁, 민족·인종 간의 갈등, 종교 분쟁, 자원 전쟁, 돈과 권력을 둘러싼 내전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세계의 여러 분쟁 지역에서는 무수한 인명 피해와 굶주림, 가난, 질병, 자연환경과 문화 유적의 파괴와 같

은 재앙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은 무엇보다 인간 정신을 황폐화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를 지닌다. 국제 사회에서의 분쟁의 원인 중 하나로, 종교적·문화적 신념의 차이에서 비롯된 서로 다른 문명 간의 충돌을 들 수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헌팅턴은 ‘문명의 충돌’에서 세계를 9개의 문명권으로 나누고, 문명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종교를 들었다. 기독교, 정교, 이슬람교, 유교, 불교, 힌두교,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일본권 등이 이에 속한다. 그는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갈등은 사회적 계급과 빈부의 차이로 구분되는 집단 사이에 나타나지 않고 가장 상이한 문화적 배경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비슷한 문화를 가진 나라들은 서로 뭉치려는 경향이 있으며, 그 안에서 질서 부여 기능을 할 수 있는 핵심 국가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는 동일한 문명 혹은 공통의 문화를 가진 민족과 국가들은 핵심국을 중심으로 통합되는 반면, 서로 다른 문명권에 속한 나라와는 분열하고 반목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는 특히 기독교와 이슬람 문명의 충돌이 미국과 소련의 냉전을 대신해 세계 평화를 가로막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걸프전(1991년) 이후 9·11 테러(2001년), 이라크 전쟁(2002년), 스페인 열차 테러(2004년), 런던 테러(2005년), 마호메트 만평 파문 등으로 이어지는 사태는 서구와 이슬람 사이의 대표적인 문명 충돌 사례이다. 또 다른 사례로 보스니아 내전(1992~1995년)을 들 수 있다. 서구 국가들은 가톨릭 국가인 크로아티아와 동맹을 맺었으며, 정교 국가인 그리스는 세르비아를 도왔고, 이슬람 국가들은 보스니아의 모슬렘을 지지했다.

#### (아)

동양의 유기체적 세계관은 내적·유기적 연관을 바탕으로 대상 전체를 한 덩어리로 파악하려는 상관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멈춤이 아닌 움직임의 실상을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오행(五行) 사상에 잘 나타나 있다. 오행 사상은 우주 만물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라 할 수 있는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가 끊임없이 변하는 관계임을 밝힌 사상이다. 오행의 다섯 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상생(相生)과 상극(相剋)의 관계를 형성한다. 오행의 다섯 요소들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서로 잘 어울리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하는 성질을 띠게 된다. 예를 들면, 나무(木)는 불(火)을, 불(火)은 흙(土)을, 흙(土)은 쇠(金)를, 쇠(金)는 물(水)을, 물(水)은 나무(木)를 낳는다고 해서 이를 각각 목생화(木生火), 화생토(火生土), 토생금(土生金), 금生水(金生水), 수생목(水生木)이라 하고, 이런 관계를 상생(相生)의 관계로 규정한다. 반면 나무는 흙을 뚫고, 흙은 물을 막으며, 물은 불을 끄고, 불은 쇠를 녹이며, 쇠는 나무를 자른다고 해서 이를 각각 목극토(木剋土), 토극수(土剋水), 수극화(水剋火), 화극금(火剋金), 금극목(金剋木)이라 하고, 이런 관계를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상극(相剋)의 관계로 규정한다. 이처럼 오행 사상은 우주 만물이 상생과 상극의 관계를 통해 서로 의존해서 존재하며, 서로 간의 균형과 협동을 통해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 1]** ‘변화’의 양상과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문 (가), (나), (다), (라)의 차이점을 하나의 완성된 글로 서술하시오. [30점, 500~520자]

**[문제 2]** 제시문 (마)에서 묘사된 두 여인의 ‘언어 사용’을 토대로, 제시문 (라)에 나타난 융합 방식을 비판하고, 제시문 (바)의 논지에 근거하여 바람직한 융합 방식을 서술하시오. [40점, 540~560자]

**[문제 3]** 제시문 (사)에 나타난 시각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문 (아)의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30점, 500~520자]

## 평가 목표와 출제 의도

### ① 평가 목표

인문사회계열 논술시험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적으로 엮어내고, 주어진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수험생들의 다양한 교과에서 발췌된 제시문들의 핵심 논지를 읽어내는 독해력, 이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통합적 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사고,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력을 평가한다. 이번 모의논술의 경우, '변화의 양상과 원인'이라는 주제 속에 포함된 다양한 시각들 사이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독해력, 이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핵심 논지들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사고력,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요구되는 융합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또는 대안 제시 능력을 측정한다. 이 과정에서 수험생들이 인문학적·사회과학적·자연과학적 제시문들의 논지와 문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지, 제시문들에 대한 개별적 이해를 넘어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문제 해결의 창의성을 갖추었는지, 또한 자신의 논지를 명확하게 구성하고 표현하였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 ② 출제 의도와 논제 접근 방법

**[문제 1]** 이 문제는 '변화의 양상과 원인'의 측면에서 네 제시문의 차이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그것을 분별하여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된 하나의 완성된 글로 서술해 내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따라서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제시문의 일차 독해 과정에서 '변화의 양상과 원인'이라는 관점에서 각 제시문의 핵심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 제시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지를 정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1) 음운이라는 개체와 개체는 상호작용하여 차이를 좁혀 갈 수 있으며 이 변화는 발음의 간편성과 편리성에 기인한다는 점(제시문 가), 2) 후추나방이라는 개체와 자연 환경은 상호작용에 의해 변화 가능하며 개체의 변화는 차차 집단으로 확대되어 결국 새로운 종의 출현이라는 질적 변화에 이르기에도 하는데 이러한 변화는 우연에 의해 촉발되어 자연환경에 의해 선택, 공고화된다는 점(제시문 나), 3) 원작의 본질은 유지하되 그 내용과 형식은 현지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변화가능하며 이는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기 위한 수용자의 자발성과 작품 자체에 내재한 보편성에 기인한다는 점(제시문 다), 4) 지배집단은 피지배집단의 본질을 말살하여 지배집단과의 차이를 소멸시켜 흡수하는 변화의 형태를 피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기 위한 외부적 강압에 의해 일어난다는 점(제시문 라)으로 요약될 수 있는 지문의 내용을 상호 비교하고 대조하여 논지의 차이를 하나의 완성된 글로 작성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이 문제의 출제 의도이다.

**[문제 2]** 이 문제는 개별적인 지식보다는 다양한 지식 간의 연관성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통섭적 사고력'과 지식의 단순 암기보다는 습득된 지식을 종합 분석하여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극복 방안을 모색해 보는 '창의적 응용력'을 평가하려는 데 있다. 우선 제시문 (마)에 묘사된 두 여인의 이중적인 '언어 사용' 양태에서 타문화권으로 이주해온 외국인이 그 나라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것인가를 추론해야 한다. 둘째, 구수한 사투리를 구사할 정도로 표면적으로는 한국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것처럼 보이지만 동족 집단 내에서는 무의식 차원에서 여전히 '원어'를 사용하는 두 여인의 모습에 근거하면, 제시문 (라)에서 추창하는 융합 방식의 문체점을 비판할 수 있다. 즉 내선일체와 같은 강압적인 통합 방식은 외면상의 융합은 가능케 할지 모르지만 인간의 내면과 무의식적 차원까지 통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한편, 제시문 (바)에는 강자가 약자를 흡수 통

합하여 지배하려는 제국주의적 정치 이데올로기인 (라)의 통합 방식을 비판하고 바람직한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논지가 내재해 있다. 즉 (바)에 나타난 당나라의 사례는 문화 간 차이를 제거 또는 일방적 흡수의 대상으로 보았던 (라)와 달리, 문화 간 차이를 존중하면서 개방적인 통합의 윤리를 실현함으로써 진정한 통합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이처럼 이 문제는 시 텍스트의 해석을 통해 내선일체 사상에 대한 비판의 논거를 유추하는 '통합적 사고력'과, 당나라의 사례라는 과거 역사를 '여기 지금'의 관점에서 재조명함으로써 21세기 세계화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통합 모델을 모색하는 '창의적 응용력'을 평가하고자 출제하였다.

### [문제 3]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종종 특정 이론이나 주장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 결과 그들이 제시하는 관점이나 생각의 틀에 갇혀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간과하기도 한다. 본 문제는 사회현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다원적 분석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관계를 이질적인 문명 간의 충돌에 기인한 파괴적인 대립 관계로 보고 있는 제시문 (사)의 관점과, 상생과 상극의 관계에 기반한 우주 만물이 내적·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는 제시문 (아)의 유기체적 세계관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사)에 제시된 문명 충돌론의 한계를 제시문 (아)의 관점에서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제시문 (사)의 해석이 국가 간 갈등적 관계 또는 상극의 관계만을 부각시킴으로써 상생의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과 상극의 관계 역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봄으로써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한 축이자 발전의 동력으로서의 갈등의 역할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 제시문 출전과 해설

- 제시문 (가) : 『고등학교 국어 상』, 천재교육,  
『고등학교 국어 상』, 더텍스트,  
『고등학교 국어 상』, 지학사,  
『고등학교 국어 상』, 해냄에듀,  
『고등학교 국어 하』, 비상교육.
- 제시문 (나) : 『과학』, 더텍스트.
- 제시문 (다) : 『고등학교 문학 II』, 지학사.
- 제시문 (라) : 『수능특강 사회탐구영역: 한국사』, EBS.
- 제시문 (마) : 『고등학교 문학 II』, 천재교육.
- 제시문 (바) :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천재교육,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학사.
- 제시문 (사) :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학사,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천재교육.
- 제시문 (아) : 『수능특강 사회탐구영역: 윤리와 사상』, EBS.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총 5종의 국어교과서에 실린 국어의 음운규칙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종합한 글이다. 이 글에서는 음운이란 형태소간 의미 차이의 근간을 이루는 말소리의 단위이며 음운들이 서로 연접할 때 음운들의 원래 소릿값이 변하는 음운변



동이 흔히 일어남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음운변동 현상 중 연접하는 두 개의 소리가 영향을 주고받아 서로 닮은 소리로 변하는 음운동화 현상을 소개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과학(더텍스트) 교과서에 실린 『생명의 연속성』에 대한 글의 일부이다. 이 글은 '생물 집단 속에서의 유전 자질이 세대가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인 검은색 후추나방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19세기 초 맨체스터 지방의 나무에는 지의류와 색깔이 비슷한 화색 후추나방이 흔했지만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오염된 환경에 적합한 검은색 후추나방이 점점 흔해졌다는 것이다.

**제시문 (다)**는 김윤식의 『홍종우와 춘향전의 프랑스 어 번역』에서 부분 인용한 텍스트이다. 이 글은 한국의 고전인 '춘향전'이 19세기 말 프랑스에서 '향기로운 봄'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출간된 역사적 사례를 추적하여 쓴 비평문이다. 번역 과정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통해, 춘향전이 프랑스어로 번역되면서 단순히 언어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문화와 풍토, 서양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맞게 내용과 형식이 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작이 함유한 근본적인 정신(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작을 유연하게 '현지화'한 이 사례는 우리 고전 문학의 폭 넓은 해외 진출을 위한 바람직한 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의 상호 관계를 재고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을 저자는 주장한다. 만일 춘향전을 프랑스적 특수성에 맞게 각색하지 않았다면 수용의 폭과 이해의 공감대가 대폭 줄어들었을 것이며, 만일 춘향전의 서사에 세계적 보편성이 내재해 있지 않았다면 프랑스인들의 공감을 얻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이 글의 핵심 요지이다.

**제시문 (라)**는 EBS 수능특강 교재 사회탐구영역에서 발췌한 것으로 당시 일본 총독부가 한국 국민에 대하여 매우 강도 높은 통합을 시도하였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제시문은 일본의 식민통치가 '조선의 일본화'를 지향하는 일방적 통합을 지향하였을 뿐 아니라, 통합의 방식에 있어서도 상대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일방적·강제적 방식에 의존하였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글은 진정한 통합이란 상대와의 쌍방향적 교류와 공감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효과적이기 어렵다는 면에서 일본의 내선일체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제시문 (마)**는 이주 노동자 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온 하종오 시인의 작품 『원어(原語)』 전문이다. 고향 가는 기차에서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온 두 여인을 목격한 시적 화자는 한국에서 타향살이하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삶의 고단함과 피곤함에 따뜻한 연민의 정을 느낀다. 그러나 이 시에 내재한 문제 의식은 이주민에 대한 관심과 연대의 차원을 넘어 선다. 제목 『원어』가 암시하듯이, 현실 세계, 즉 자신이 적응해 살아가야 하는 한국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꿈속에서는 모국어, 즉 원어를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이주민 여성의 이중적인 존재성은 다문화 시대 서로 다른 두 문화의 통합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제시문 (바)**는 천재교육과 교학사의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에서 각각 발췌한 두 개의 텍스트를 재구성한 것으로서 7~8세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상호 교류 및 문화 전파 양상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 지문은 당의 수도 장안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동서의 문화가 교유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활발하게 상호 교류하였으며 이러한 교류가 당에서 그치지 않고 이후 인적 교류를 통해 세계 각국에 전파되고 융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질적인 문화가 만났을 때, 타문화를 말살하거나 강제로 변형시키지 않고 그 고유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수용하고 자문화와의 융화를 통해 문화의 외연을 확대하고 보다 넓은 세계(제시문에서는 동아시아)의 문화에 동참하는 수평적이고 열린 융합의 좋은 예를 보여준다.

**제시문 (사)**는 교학사의 『고등학교 사회·문화』와 천재교육의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에서 발췌한 두 개의 텍스트를 재구성한 것이다. 이 제시문에서 소개된 헛팅턴의 문명 충돌론은 서로 다른 문명이 충돌할 때 생기는 갈등이 분열과 파괴로 이어진다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국제 관계를 해석하고 있다. 종교를 중심으로 문명권을 구분하여 동질 문명권 내에서는 통합이, 이질 문명권 간에는 분열과 반목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한다.

**제시문 (아)**는 EBS 수능교재 사회탐구영역의 윤리와 사상에서 발췌하였다. 이 제시문에 따르면, 동양의 유기체적 세계관은 개체적 특성보다는 개체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행사상은 우주 만물의 구성 요소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상대에 따라 다른 관계를 맺는다고 본다. 개체들이 특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대에 따라 서로를 돕는 상생관계와 서로를 배척하는 상극관계에 놓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구성 요소들 사이의 상생과 상극 관계 자체도 전체적 관점에서 볼 때 서로 의존하는 관계이며, 더 나아가 우주 전체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원리로 작용한다는 것이 이 제시문의 요지이다.

## 예시답안 및 채점기준

### [문제 1] 예시답안

(가)~(라)는 변화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가)는 음운이라는 개체와 개체가 상호작용하여 음가의 차이를 좁혀가는 동화이다. (나)는 개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한 진화로서 개체의 변화가 차차 집단으로 확대되어 새로운 종이 출현하는 질적 변화에 이르기도 한다. (다)는 원작의 본질은 유지하되 그 내용과 형식을 현지의 상황에 맞게 개작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이다. (라)는 피지배집단의 본질을 말살하여 지배집단과의 차이를 소멸시켜 흡수하는 변화이다. 변화의 원인을 보면, (가)의 변화는 발음의 간편성과 편리성에 기인하고, (나)의 변화는 우연에 의해 촉발되어 자연환경에 의해 선택, 공고화된다. (다)는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기 위한 수용자의 자발성과 작품 자체에 내재한 보편성에 기인한 변화이다. (라)의 변화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기 위한 외부적 강압에 의해 일어난다. 요컨대, 변화는 일방향성과 쌍방향성, 차이의 유지와 소멸 등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그 원인 또한 간편성, 우연, 자발성, 의도 등 다양하다. [518자]

### 채점기준 : 30점 만점

#### (1) 글의 내용과 구성(30점)

##### ① 제시문 (가~라)에 변화의 양상을 적절히 파악 (15점 만점)

- (가)는 음운이라는 개체와 개체가 상호작용하여 차이를 좁혀가는 변화이다. (나)는 개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한 변화이며 개체의 변화가 차차 집단으로 확대되어 결국 새로운 종의 출현이라는 질적 변화에 이르기도 한다. (다)는 원작의 본질은 유지하되 그 내용과 형식을 현지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이다. (라)는 피지배집단의 본질을 말살하여 지배집단과의 차이를 소멸시켜 흡수하는 변화이다. 요컨대, 변화는 일방향성과 쌍방향성, 차이의 유지와 소멸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 ② 제시문 (가~라)의 변화의 원인을 적절히 파악 (15점 만점)

- (가)의 변화는 발음의 간편성과 편리성에 기인하고, (나)의 변화는 우연에 의해 촉발되어 자연환경에 의해 선택, 공고화된다. (다)는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기 위한 수용자의 자발성과 작품 자체에 내재한

보편성에 기인한 변화이다. (라)의 변화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기 위한 외부적 강압에 의해 일어난다.

요컨대, 변화의 원인 간편성, 우연, 자발성, 의도 등 다양하다.

①의 내용을 쓰면 3~15점을 부여한다.

②의 내용을 쓰면 3~15점을 부여한다.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이며 문장력과 표현력도 탁월한 경우, 만점 30점 이내에서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그리고,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 제시문에 나오는 표현이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 최대 5점 감점할 수 있다.

## (2) 감점사항 (-5점)

- 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를 위반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감점한다.
  - 기준 글자 수에서  $\pm 1 \sim 25$ 자까지는 1점 감점.
  - 기준 글자 수에서  $\pm 26 \sim 50$ 자까지는 2점 감점.
- ②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을 감점할 수 있다.

## [문제 2]

### 예시답안

(라)는 한 민족이 언어말살이나 창씨개명과 같은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방식으로 다른 민족의 고유성을 말살하여 흡수 통합하고자 시도한다. 그러나 (마)의 두 여인의 언어 사용 양상이 상징적으로 암시하듯이, 구수한 사투리를 사용할 정도로 한국에 완벽하게 동화된 것처럼 보이는 이주 여성이 동족 집단 내에서 원어를 사용하고 잠꼬대를 모국어로 말하는 모습은 표면상으로는 타문화에 완전히 융합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무의식의 기저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고유성을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라)와 같은 강압적인 방식으로는 외면 상의 통합은 가능할지 모르나 내면까지 융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바)의 사례는 (라)의 한계를 넘어선 바람직한 융합의 모델을 제시한다. (바)에 따르면 진정한 융합이란 문화 간 차이를 제거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차이를 존중하는 개방적 태도를 견지할 때 실현된다.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타문화와의 수평적인 교류를 통해 문화의 외연을 확장할 때, 인류는 더 많은 가치와 문화를 공유하게 되어 고유성과 보편성이 공존하는 문화의 세기가 구현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558자]

## 채점기준 : 40점 만점

### (1) 글의 내용과 구성(40점)

- ① 제시문 (마)에 묘사된 두 여인의 언어 사용 양상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적절히 파악 (10점 만점)
  - 구수한 사투리를 사용할 정도로 한국에 완벽하게 동화된 것처럼 보이는 이주 여성이 동족 집단 내에서 원어를 사용하고 잠꼬대를 모국어로 말하는 모습은, 표면상으로는 타문화에 완전히 융합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무의식의 기저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고유성을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② 제시문 (마)의 논거를 토대로 제시문 (라)의 문제점을 비판 (15점 만점)
  - 한 민족이 언어말살이나 창씨개명과 같은 수직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제국주의 힘의 논리, 식민지 통합 정책)으로 다른 민족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말살하여 흡수 통합하려는 (라)의 강압적인 방식으로는 두 민족(집단) 간의 외면상의 융합은 가능할지 모르나 내면까지 융합하는 진정한 통합은 불가능하다.

- ③ 제시문 (바)의 요지를 파악하여 (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통합 모델을 제시 (15점 만점)
- 진정한 융합이란 문화 간의 차이를 제거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차이를 존중하는 개방적 태도를 견지할 때 실현된다.
  -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타문화와의 수평적인 교류를 통해 문화의 외연을 확장할 때, 인류는 더 많은 가치와 문화를 공유하게 된다.
  - 고유성과 보편성, 개별적 특수성과 보편적 세계성이 상호 소통할 때 진정한 통합이 구현된다.
- ①의 내용을 쓰면 2~10점을 부여한다.
- ②의 내용을 쓰면 3~15점을 부여한다.
- ③의 내용을 쓰면 3~15점을 부여한다.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이며 문장력과 표현력도 탁월한 경우, 만점 40점 이내에서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그리고,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 제시문에 나오는 표현이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 최대 5점 감점할 수 있다.

#### (2) 감점사항 (-5점)

- 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를 위반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감점한다.
- 기준 글자 수에서  $\pm 1 \sim 25$ 자까지는 1점 감점.
  - 기준 글자 수에서  $\pm 26 \sim 50$ 자까지는 2점 감점.
- ②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을 감점할 수 있다.

#### [문제 3]

#### 예시답안

(사)의 필자는 세계 분쟁이 계급적·경제적 격차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명 간의 충돌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일면적인 세계관은 (아)의 오행사상의 유기체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그 한계가 지적될 수 있다. 오행사상에 따르면 상이한 개체들은 서로 협력하는 상생의 관계를 맺을 수도, 서로 갈등하는 상극의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개체들은 상생, 상극의 관계를 통해 상호의존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우주만물은 상생과 상극의 균형을 통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오행사상의 관점에서 볼 때, 이질적인 문명 간의 만남이 반드시 분열과 파괴를 야기한다는 (사)의 시각은 소통과 교류를 통한 문명 간 상생과 발전의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 문명 간 차이 및 갈등에 대한 (사)의 인식 또한 지나치게 부정적이다. 상극에 해당하는 이질적인 문명은 자문화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 주는 타자이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동력이 된다. 따라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문명 간 차이와 갈등은 조화로운 세계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 [519자]

#### 채점기준 : 30점 만점

##### (1) 글의 내용과 구성

- ① 세계 관계를 바라보는 제시문 (사)의 시각 파악
- 세계 분쟁의 원인을 종교적·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문명의 충돌로 보고 그 결과가 분열과 반목, 파괴로 이어진다는 내용을 이해해야 함

## ② 제시문 (아)의 동양오행설에 나타난 세계관 이해

- 우주 만물은 상생과 상극이라는 관계를 통해 서로 의존하고 연관되어 있으며, 우주의 조화를 위해서는 상생과 상극 관계의 균형과 협동이 필요함을 이해해야 함

## ③ 제시문 (아)를 근거로 제시문 (사)의 시각의 한계 지적

- 제시문 (사)는 서로 다른 문명 간 상극의 관계만을 지나치게 부각시킨 결과 상생의 가능성을 간과함. 소통과 교류를 통한 상생의 가능성이 존재함.
- 제시문 (사)는 이질 문명 간 상극의 관계가 분열과 파괴로 이어진다고 봄으로써 상극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러나 제시문 (아)의 관점에서 보면, 상극은 상생과 마찬가지로 우주 만물의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요소임

①의 내용을 기술하면 1~5점 부여한다.

②의 내용을 기술하면 6~10점 부여한다.

③의 내용을 기술하면 11~15점 부여한다.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이며 문장력과 표현력도 탁월한 경우, 만점 30점 이내에서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그리고,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 제시문에 나오는 표현이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 최대 5점 감점할 수 있다.

## (2) 감점사항 (-5점)

## 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를 위반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감점한다.

- 기준 글자 수에서  $\pm 1 \sim 25$ 자까지는 1점 감점.
- 기준 글자 수에서  $\pm 26 \sim 50$ 자까지는 2점 감점.

## ②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을 감점할 수 있다.